

'2주새 태풍 3개 영향' 광주·전남, 큰 피해 없어

8호 바비·9호 마이삭에 10호 하이선까지 줄줄이 영향
시설·농수산 크고 작은 피해 잇따랐지만 사상자 없어

최근 2주간 태풍 3개가 잇따라 북상, 광주·전남에 영향을 줬지만 큰 피해는 없는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7일 광주·전남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경남 남해안을 지나고 있는 제10호 태풍 '하이선(HAISHEN)'에 의한 비·바람 피해 신고는 총 43건으로 집계됐다.

태풍과 인접한 전남 동부권을 중심으로 가로수 쓰러짐·간판 흔들림·주택 침수 등이 잇따랐다. 광주에선 시설 피해 등이 아직 접수되지 않았다. 지역 내 인명피해도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광주·전남 전역에 태풍 특보가 유지되고 있어 긴장을 늦출 수 없지만 큰 고비는 넘긴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지역을 거쳐갔던 8호 '바비(BAVI)'와 9호 '마이삭(MAYSACK)'도 당초 우려했던 것보다 피해가 크지 않았다.

'바비'는 지난달 26일부터 이틀간 전남 서해상에 강한 바람을 몰고와 신안·흑산도를 중심으로 한 서해안·도서 지역에 피해를 남겼다.

가거도 방파제 상치 콘크리트 15m가 파손됐으며, 전남도에서만 공공시설 47건, 사유시설 4건 등 51건의 피해가 발생했다.

농작물 피해도 발생, 벼 140ha가 쓰러지고 320ha의 낙과 피해가 발생했다. 비닐하우스

0.7ha가 부서졌다. 신안군 일대에선 96가구가 정전됐다. 이 밖에도 여수·순천·영광·해남 등지에서 가로수 쓰러짐·도로 침수 등이 잇따랐다.

양식장 등 수산물 피해는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집계하고 있다.

광주에서는 42건의 시설이 피해를 입었고 북구 문흥·오치동 일대 2468가구의 전력 공급이 일시적으로 끊겼다.

이어 지난 2일 남해안을 내습한 '마이삭'도 지역 곳곳에 크고 작은 생채기를 남겼다.

마이삭이 몰고 온 비바람으로 전남에서 벼·밭작물·과수 3072ha가 쓰러지거나 침수됐다. 벼 피해 규모는 2174ha다. 도복 2141ha, 염해 20ha, 침수 13ha로 잠정 집계됐다. 고흥·나주·해남 지역 벼 농가 피해가 컸다.

나주·고흥·곡성·장성 등 과수 농가에서는 884ha(배 547ha, 사과 157ha)가 피해를 본 것으로 집계됐다. 밭작물 14ha도 비바람 피해를

봤다. 바다에선 보성 새조막 채묘시설 140대, 완도 청각양식시설 178줄이 유실됐다.

전남 공공시설 39곳도 파손됐다. 여수·광양·영광·곡성·영암·해남 3300가구의 전력 공급도 끊겼다가 복구됐다.

광주에선 31건의 시설 피해만 발생했다. 태풍에 의한 정확한 피해규모 집계는 수일이 더 걸리겠지만, 행정당국은 걱정했던 것보다 피해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집중호우에 이어 3차례나 태풍이 지나면서 큰 피해가 우려됐다. 강한 바람을 동반한 폭우가 내렸지만 태풍의 위력이 생각보다 덜 했고 대비도 철저히 했던 터라, 피해가 적은 편이었다"고 말했다.

광주·전남도는 앞선 태풍에 이은 '하이선'에 따른 각종 시설 피해 규모 등을 파악하는데 행정력을 모으고 있다.

김정환기자



천연기념물 지정예고된 담양 태목리 대나무 군락. (사진=담양군 제공)

담양 태목리 대나무 군락 천연기념물 지정 '눈앞'

대나무의 고장, 전남 담양을 상징하는 태목리 군락이 천연기념물 지정에 눈앞에 두게 됐다.

7일 전남 담양군에 따르면 문화재청이 이날 대전면 태목리 대나무 군락을 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로 지정 예고했다.

영산강 하천변을 따라 길게 형성돼 있는 태목리 대나무 군락은 국내에서는 보기 드물게 퇴적층에 자연적으로 형성된 대규모 군락으로, 2004년 환경부 지정 담양 하천습지 안에 위치하고 있다.

천연기념물인 매, 황조롱이, 수달 등을 비롯한 야생 동식물에게 서식 공간을 제공해

전통 생활문화자원까지 인정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발전"

환경학, 생태학적 연구와 보존 가치가 높은 지역이다. 대나무가 천연기념물로 지정 예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나무 군락은 30일 동안 의견 수렴 기간을 거쳐 중앙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면 천연기념물로 지정되게 된다.

군 관계자는 "담양하면 대나무가 떠오르듯, 앞으로 자연유산으로서 대나무 가치를 부각시키면서 인근 응봉리, 태목리 유적과 하천 습지, 담양 오방길과 연계해 자연유산과 역사문화유산이 결합한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담양은 전국 대나무 면적의 34%를 차지하는 대나무의 고장으로 예로부터 부채류와 대바구니 등이 공물로 생산됐고, '규합총서'에는 명상품으로 담양의 채죽상자와 세대산갓이 소개된 기록도 있다.

또 국가무형문화재 제53호 채상장(彩箱匠)을 비롯, 참빗장, 낙죽장 등 5개 종목 보유자 6명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죽세공에 전통기술 전승을 위한 '대나무 명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담양=박종영기자

'발열 체크에 대형 가림막'...달라진 수능 원서접수장

손 소독 등 기본절차 9단계로 확대
접수처 필수 응용인력 8명으로 늘려

"수험생이세요? 발열 체크와 손소독부터 하시고 명부도 작성해 주세요."

7일 오전 광주시 교육청 별관 1층 수능 원서접수 현장. 다른 시·도 출신이나 검정고시, 시험 편의 제공 대상자를 위해 마련된 원서접수처에는 이른 아침부터 수험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원서접수 개시일인 지난 3일 이후 150명 넘는 수험생들이 응시원서를 제출했다. 코로나19 확진자나 격리통지를 받은 수험생을 위한 대리접수는 아직까지 없는 상태다.

수험생들은 예년에 없던 통관의례를 치러야 했다. 우선 발열 체크와 손소독부터 한 뒤 1m 이상 거리를 둔 채 응시원서 기초자료를 작성해 제출하고, 본인 확인작업을 거쳐 응시원서를 수령한 다음 사진을 붙이고 날인(서명)하게 된다.

이어 최대 4만7000원에 이르는 수수료와 함께 응시원서를 제출하고 접수확인서 내용을 확인·서명 후 접수증을 받는 순으로 10분 남짓 접수처에 머물게 된다. 본인 확인을 위해



수능 원서 접수하는 수험생. (사진=광주시교육청 제공)

1~2초 가장 마스크를 잠깐 내리는 것을 제외하고 머무는 내내 마스크로 코와 입을 모두 가리도록 안내받고 있다.

통상 5~6단계이던 접수절차는 코로나19 영향으로 9단계로 늘었다.

인력도 늘어 1년 전만 해도 6명에 불과하던 필수인력은 8명으로 늘어났다. 첫 단추인 발열 체크와 소독 과정에 필수인력이 투입됐다.

수험생과 접수처 직원들 사이엔 대형 투명

아크릴 가림막이 설치됐고 서류 작성 책상도 감염병 차단을 위해 띄엄띄엄 설치됐다. 접수처에는 수험생만 입장할 수 있고, 동행한 가족과 친구들은 접수처 바로 앞 대형텐트 안에서 대기하도록 했다.

코로나19 불안감을 느껴선지 학부모와 동행하는 수험생도 간간히 목격됐다.

한 수험생은 "지난해보다 원서접수 분위기가 확 달라졌고 코로나19 때문인지 여러가지

걱정스럽긴 하다"면서도 "12월2일, 수험표를 받는 예비소집일 이전에 코로나19가 종식됐으면 하는 게 가장 큰 바람"이라고 말했다.

시험장 분위기도 예년과 확연히 달라진다. 방역이 최우선이다.

우선 광주지역 38개 시험장 학교에 수능일인 12월3일 전후로 특별방역이 실시되고, 지난해 28명이던 시험실당 수험생수도 24명으로 축소된다. 마스크는 시험시간 내내 착용해야 한다.

일반 수험생은 일반 시험장 내 일반시험실에서, 유증상자는 일반시험장 내 별도시험실에서, 자가격리자는 별도시험장에서 수능을 치른다. 코로나19 확진자는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에서 응시한다.

전례없는 '코로나 수능'을 맞아 시·도교육감도 응원 메시지를 내놓았다.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코로나19를 경험한 유일한 수험생들"이라며 "위기는 곧 기회다. 난관을 극복하는 의지와 문제해결력을 갖춘 여러분 모두 꿈의 결실을 맺고 희망의 바다에 도착할 것"이라고 응원했다.

장석웅 전남도교육감은 "위기에 더욱 빛나던 우리 민족의 힘과 저력을 믿는다"며 "좋은 때도, 나쁠 때도 있고 풍년에는 베풀고 흉년에는 기릴 수 있어 좋다"며 위기 극복에 자신감을 내비치며 서로를 격려했다.

조인호기자

첫눈에 반하고 스케일에 놀라다!

강남이 부러워하는 고품격 단지특화 디자인으로
광주에서 볼 수 없었던 2,490세대 프리미엄 대단지가 펼쳐집니다!

사이버모델하우스 운영중
www.gj-jnd.com

급료 중흥S-클래스 & 두산위브더제니스

특별공급 9월 14일(월)

1순위 9월 15일(화)

2순위 9월 16일(수)

당첨자 발표 9월 22일(화)

총 2490세대 | 아파트 2240세대 | 오피스텔 250실

문의 062-362-9877

시흥 임동(우동)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시흥 흥흥토건 두산건설
주택전시관 : 광주광역시 북구 경일로 275 | 현장 : 광주광역시 북구 임동 76번지 일대

* 상기 투시도는 사업승인 도면을 바탕으로 소비자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CG로서 실제 시공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출입구 디자인, 조정식제, 옥탑부, 청초형제, 외부색채 및 마감, 포장계획, 시설물 등의 위치는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